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1. 26.(일) 11:00 < 1.27.(월) 조간 > 배포 2025. 1. 24.(금)

통상교섭본부장, 세계경제포럼(WEF) 계기 주요국과 대미(對美) 공조 및 통상현안 논의

- 유럽연합(EU), 일본, 아세안 등 10여개국과 양자면담 진행
- 다보스포럼 주요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 연차총회(이하 “다보스포럼”) 참석 계기에 주요국*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. 아울러,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 ‘무역과 투자 리더십’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(국가명, 면담 시간순) 프랑스, 필리핀, 아세안, 걸프협력이사회(GCC)(이상 1월 22일), 사우디아라비아, 바레인, 유럽연합(EU), 뉴질랜드, 영국(이상 1월 23일), WTO, 일본(이상 1월 24일)

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, 필리핀, 아세안(ASEAN), 걸프협력회의(GCC), 사우디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,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. 또한,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,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,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. 아울러,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,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.

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(EU) 마로시 셰프초비치(Maroš Šefčovič)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-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하였다.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(차관급)과는, 지난 12월 한-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-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, 공급망·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하였다.

아울러, 아세안 카으 끔 후은(Kao Kim Hourn) 사무총장을 포함하여,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(Cristina Aldeguer-Roque)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-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또한,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(Jonathan Reynolds) 기업통상부 장관,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(Vangellis Vitalis) 외교통상부 차관, 걸프협력회의(GCC)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(Jasem Mohamed Albudaiwi) 사무총장,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(Majid A. Al Kassabi) 상무부 장관,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(Abdulla Bin Adel Fakhro)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-영, 한-뉴질랜드, 한-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하였으며,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. 더불어,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(Laurent Saint-Martin) 통상·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.

양자면담에 이어, 정 본부장은 1월 23일 '무역과 투자 리더십' 세션에도 참가하였다.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였고,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.

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△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, △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하였으며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.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-이웰라(Ngozi Okonjo-Iweala)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, 제14차 WTO 각료회의(MC-14, '26.3월, 카메룬)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,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, WTO가 기후변화, 인공지능(AI)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만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송승희 (044-203-5626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	정다연 (044-203-5666)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	책임자	과 장	김파라 (044-203-5920)
		담당자	사무관	전기성 (044-203-59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